

2 0 0 9 통일백서

발간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탈냉전기(脫冷戰期)를 지나 '변화무쌍'한 전환기의 여정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공유하는 한반도, 남과 북의 관계 역시 가변적인 환경과 유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호작용과 영향을 주고받는 탓에, 그 명확한 해법과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제체제'라는 일반적인 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한반도의 복잡다단한 갈등은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와 한반도의 양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 간에 노정되었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 제안 등이 미래전략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돌이켜 보건데, 남과 북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경직된 사고에 묶여서 큰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세우고 '유연'하게 행동하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감을 상실한 이상주의도,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도 모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의 방향은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이 만든 국가적 목표와 변화하는 국제정세, 그리고 통일을 향한 국민여망을 담아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남북공영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비핵·개방·3000'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과 경제공동체라는 '큰 열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계획을 세심하게 꾸려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을 제안한 우리의 진정성과는 달리, 한반도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원칙과 기본'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하에 대북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차단하고 전략무기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남북대화'와 '상설대화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생필품·의료적 지원, 물적·인적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대화와 인도주의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갈라진 남북이 사이 좋게 통일의 열차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민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한반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올바른 정책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8년은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광복 63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이하였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기틀을 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꿈과 「통일 한반도 시대의 전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이제, '강한 나라',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대와도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이 살아있고 유연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2009년 통일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백서에는 상생·공영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소중한 흔적들이 담겨있습니다. 통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한줌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통일부 장관 **현 인택**

발간사 / 2

제1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제1절 정책 추진환경 / 16

제2절 정책 수립과정 / 19

제3절 비전 · 원칙 · 추진과제 / 21

1. 비 전 / 21
2. 원 칙 / 22
3. 추진과제 / 23

제4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노력 / 27

1.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 27
2.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 35
3. 「비핵 · 개방 · 3000」 이행준비 / 40

제2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제1절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 · 제도 확충 / 46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46

2. 「남북협력기금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 48

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추진 / 50

제2절 대북정책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 52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 · 운영 / 54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54
2.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 57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60

1. 대북 민간경협 지원 / 60
2. 협의사무소 인원 철수 / 63
3.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 64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역 및 투자 / 70

1. 남북교역 / 70
2. 남북 민간경제협력사업 / 77

제2절 남북간 운송체제 / 78

1. 남북 화물열차 운행 / 78
2. 해상운송 / 79
3. 항공운송 / 81

제3절 개성공단사업 / 82

1. 개성공단 통행 상황관리 / 82
2. 입주기업과 생산현황 / 83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 89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 91
5. 기업 투자환경 / 94
6.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 101

제4절 남북관광협력 / 104

1. 금강산 관광 / 104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 105
3. 개성관광 / 105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 107

1. 남북공동행사 / 107
2. 문화·예술 교류 / 108
3. 역사·학술 교류 / 109
4. 체육 교류 / 111
5. 종교 교류 / 113
6. 지방자치단체 교류 / 114

제6절 기타 남북교류협력 / 116

1.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 / 116
2. 농업 협력 / 117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 125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 129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 130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 131

제3절 인도적 지원 / 135

1. 민간차원의 지원 / 136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141
3.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 145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146

1. 사회적응교육 / 147
2. 정착지원 / 149

제5절 북한인권 문제 / 158

제5장 남북대화

제1절 군사분야 회담 / 169

1.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69
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70

제2절 경제분야 회담 / 172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72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74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 / 176

제3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 178

제6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제1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 184

제2절 통일정책 홍보 / 189

제3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 192

제4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 196

제5절 통일교육 / 200

1. 통일교육 기본방향 / 200
2. 초청교육 / 202
3. 사이버 통일교육 / 209
4. 통일교육 자원 / 214
5.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22

부록

2008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28

2008년 남북관계 주요 통계 / 236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